

# 화순군 임도 개설 현장 벌목 폐기물 수백t 수개월 방치

### 금전·덕천지구 개설 지난해 마무리... "예산 반영 안돼" 처리에 뒷걸 인근 주민들 여름철 집중호우 앞두고 환경 훼손·산사태 발생 우려

화순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임도 개설 현장에서 임목 폐기물이 수개월째 수백t 방치돼 주민들이 몹쓸 냄새를 맡고 있다.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화순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방치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이 발주한 한천 금전지구(0.96km)와 능주 관영 덕천지구(1.57km) 임도 개설 공사가 지난해 마무리됐다.

화순군은 한천면 금전리와 능주면 관영리 일대에서 각각 1억9000만원,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산 도로를 준공했다.

이들 사업을 수주한 지역 법인과 산림조합은 금전리와 관영리에 각각 0.96km, 1.57km에 달하는 임도를 냈지만, 공사 현장 곳곳에는 임목 폐기물인 나무뿌리가 무더기로 방치된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방치된 임목 뿌리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살펴보니 임도 공사 현장에는 임목 뿌리 등 폐기물이 너저분하게 버려진 채 방치돼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임도 개설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5t 이상 나무뿌리와 가지, 줄기 등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돼야 한다.

관련 법을 어기고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60)은 "임도 개설 공사가 끝났는데도 아직 임목 뿌리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화순군 측은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며 관계 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임목 폐기물 방치를 인정하면서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에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순군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기물 방치 문제에 손 놓고 있다.

화순군 산림과 보호계 담당자는 "임목 뿌리 등의 처리비용은 애초 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애초 산림청이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며 산림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는 산림청으로부터 임도 개설 예산을 받으면 뒤집어 놓지 않도록 시공 업체에 폐기물 처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 산림과 보호팀장은 "임도 사업 때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미리 임목 제거 분량에 맞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출해 용역 계약을 맺는다"며 "시공업체 측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약 내용을 명문화한 덕분에 주민 민원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화순 글·사진·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8일 화순군 한천면 금전리 임도 준공 현장 인근에 나무뿌리와 가지 등 임목 폐기물 수백t이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 함평나비대축제 18만5000명 즐겼다

11일간 열린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이 나비를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11일간 축제 일정 마무리 입장료 수입 7억2900만원

'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 함평엑스포공원이 11일간 18만5500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가운데 이틀간 정비를 마치고 9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함평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 '26회 함평나비대축제'에 18만5500명이 다녀갔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입장료 수입은 7억2900만원에 달한다. 지역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1억6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각종 판매장 매출과 공간

임대료 수입을 더하면 수입은 7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축제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산호랑나비 등 25만마리의 나비를 선보였다.

함평천 수변길과 엑스포공원에는 유채꽃, 안개꽃, 꽃양귀비 등 봄꽃 향연이 펼쳐졌다.

축제장에서는 나비 판타지아 행렬, 엄마 까투리 공연, 바나나 파기 체험, 도식 속 목장 놀이체험, 전자음악(EDM) 파티 등 40여 종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 동물 먹이 주기 체험, 나비 가면 꾸미기, 나비 의상 입어보기 등도 마련됐다.

올해 새로 개장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

1980년대 함평의 실제 생활상을 선보였다. 황금박쥐 조형물을 내놓은 황금박쥐전시관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친환경농업관에서 처음 선보인 '함평에서 처음 따보는 바나나' 체험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를 마치고 이틀간 정비를 한 함평엑스포공원은 9일부터 무료 개방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나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힘쓴 자원봉사자와 600여 공직자, 특히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나비 축제 때는 더 나은 행사장 연출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성군, 쌀 해외판로 확대...전남 첫 안평쌀 미국 수출

### 4kg 300포 텍사스 시범수출 선적식

장성군이 지역 재배 쌀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을 겨냥한 고품질 쌀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장성군은 지난 7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평쌀' 미국 시범수출 선적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안평쌀 미국 수출은 전남지역에선 장성군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한중 장성군수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원,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협 중앙회 관계자와 농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적한 안평쌀은 4kg들이 300포 분량으로 미국 텍사스주로 시범 수출했다.

토양 검정과 염색도 측정, 단백질 검사 등 엄격한 과학적 관리를 통해 재배된 특등급 쌀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벼 '안평'은 일반 쌀보다 맛이 달고 찰기가 돌아 선호도가 높다. 2020년 최고품질 쌀로 선정됐을 만큼 밥맛이 뛰어난 품종이다.

장성군은 전남에선 처음으로 시범 재배사업에 뛰어들어 18.5ha 규모의 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글로벌장성농업조합법인이 재배를 주도하고,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재배기술 교육 등



지난 7일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평쌀' 미국 시범수출 선적식이 열린 가운데 김한중 장성군수와 참석 내빈들이 수출시장 확대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을 지원했다.

장성군은 '모판 1회 관주 처리', '육묘상자처리제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통해 쌀 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식문화와 소비자 반응을 통

해 맛이 검증된 안평쌀이 미국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품질 쌀 판매시장에 첫걸음을 내딛던 만큼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나주에 구축

### 17억9000만원 들여 내년 운영 기업 수요 맞춤형 실증 등 지원

전남, 전북, 광주권역을 아우르는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나주에 구축된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운영사업' 대상지에 나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 허브센터'에는 현실 세계와 같은 3차원 가상 세계가 펼쳐진다. '가상(메타)과 '우주(유니버스)를 합친 '메타버스'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기로 접속해 자신의 아바타(분신)를 만들어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센터는 내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나주에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비 적정성 심의 등을 거쳐 센터의 적합한 위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관하고, 광주시·전주시가 참여한다.

올해는 시험 장비와 교육장을 구축해 사업 기반

을 조성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에는 국비 7억2000만원·지방비 10억7000만원 등 총사업비 17억9000만원이 든다.

내년부터는 기업 수요 맞춤형 실증 지원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 실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콘텐츠 실증', '서비스 및 콘텐츠 기술 최적화·고도화' 지원, '인재 양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 간 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제작된 메타버스 콘텐츠를 상용화하기 이전 5G(5세대) 환경 실증이 이뤄진다. 끊임 현상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사전 발견해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개발자 양성, 기업 수요 맞춤형 제작자 대상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연산 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하는 등 메타버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전남, 전북, 광주 권역을 포괄하는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나주에 구축된다"며 "고도화된 실증 지원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를 검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강진원 강진군수와 군동면 주민 600여 명이 '안전마을 선포식'을 열고 마을의 복지·안전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군동면 '스마트 안전마을'로 거듭난다

### 행안부 '복지·안전 개선' 공모 선정 AI 안부 확인·관계 시스템 등 구축

강진군 군동면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마을'로 거듭난다.

강진군은 최근 1실내체육관에서 군동면 안전마을 선포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안전마을은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처음 열린 선포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기관 단체장과 군동면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 공모사업에서 농촌형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형을 제시해 총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군은 군동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복지·안전 총괄 조직 구성 ▲인공지능(AI) 안부확

인관계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심 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안전교육 ▲안전 경로당 인증 프로그램 ▲생활 위해 환경 개선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동면은 '상생 돌봄으로 하나 되는 복지 안전 공동체'를 내걸고 '인공지능 기술', '마을공동체', '복지 안전 리더 양성'을 3대 축으로 삼았다.

군동면과 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14개 기관 단체는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진군은 행안부의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안전 지도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김은주 군동면 안전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안전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 돌봄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